

비도시권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비즈니스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성택*, 조민우**, 김태웅***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에이씨엔티시스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usiness Model for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in Non-Urban High Schools

Seong-Taek Park*, Min-Woo Cho**, Tae-Ung Kim***

School of Busines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C&T System**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진로 및 학업상담교육은 학생들과의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상호작용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로교육은 단순히 전공, 대학 및 직업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들의 장기적인 진로관련 효능감 제고를 위해서는 진로교육 상담교사와의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접촉이 요구된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의하면 비도시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의 학교와는 달리 진로교육 및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들의 배치율이 낮아 진로교육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현업전문가의 교육기부를 전제로 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MBA 동문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한다. MBA 재학생 및 동문들의 스킬, 지식,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진로교육 및 상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결론으로 비도시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 유발과 지속적인 관심유발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편익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진로 및 학업상담교육, 비도시지역의 고등학교, MBA 동문회, 사회적 기업, 교육기부

Abstract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is often viewed as the catalyst for frequent and consistent interaction with students, but it is more than simply advising students about which majors, universities or jobs to consider. Ongoing, personal contact of career and academic counselors with students is an essential component in long-term career-related efficacy. But statistics show that high schools in non-urban or rural areas face significant issues different from those schools in metropolitan or suburban contexts, failing to maintain the significant number of teachers enough for effective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This article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of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provided by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lumni based social enterprise in Seoul. This service explores the skills, knowledge and capabilities which MBA alumni gained from their jobs and MBA programs within the context of a career-competency framework.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social and educational aspect of this shared responsibility strategy that may enhance student motivation and persistence in non-urban high schools.

Key Words :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Non-urban High school, MBA Alumni, Social Enterprise, Educational Donation

Received 2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Tae Ung Kim
(SungKyunKwan University) Email: tukim@skku.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올해 초 쏟아져 나온 수많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시름에 쌓여 있다. 2016년 2월 기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로 전년 동월대비 1.4%나 증가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2008, 2009년의 8%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부[1]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 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과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강화, 진로교육 대상 확대, 진로체험 활성화,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의 정책 영역을 포함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20)」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은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진로개발 역량 신장과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며, 범사회적인 진로체험 제공 분위기 조성을 통한 다양한 체험처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사례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더불어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 특화 벨트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며, 직업현장의 경험이 일천한 대학생들을 멘토로 모집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로교육의 효과가 다소 의심스럽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교육관련 정책이 발표된 바 있지만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 학교는 예산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일류대학 진학 위주의 교육 풍토 하에서는 수도권의 대도시 소재 학교에 비해 소외되고 낙후된 교육기관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진로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하나의 학교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이나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2].

그렇지만 입시 위주가 아닌 꿈과 끼를 살리는 진로교육 관점에서 농어촌 학교는 이전의 시각과 크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긴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활발한 지원 등을 고려하면 꿈과 끼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소수의 학생으로 운영되는 농어촌 학교는 도시의 중·대규모 학교에 비해 맞춤형 교육 및 학습자 중심 수업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 분산도 줄일 수 있다[2]. 또한 학교 내외의 교우 활동을 통해 또래집단을 넘어서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회성 함양도 도모할 수 있다. 농어촌 학교에의 맞춤형 진로교육은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진로를 계획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청소년기의 중·후반기에 이르르면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알려져 있다[3]. 그러나 특정분야로 진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직업을 갖기까지는 장시간을 요하는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결정은 특정시기에 한정되지 않는 연속된 의사결정의 모음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특화된 다양한 산업에 대한 소개, 경영지식, 업무경험, 업무에 임하는 마인드 등 다양한 내용을 농어촌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진로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단편적 지식은 커리어넷이나 그 외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 전달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직업 현장에서 삶을 개척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인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상호작용방식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 현황과 학생들의 진로교육 관련 인식 수준 파악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 등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이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직업인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진로교육 및 상담에 대한 교육기부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동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중심의 교육기부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교육기부를 체계화시킨 새로운 개념의 교육기부의 타당성을 이슈화해보고자 한다.

2. 비수도권 학교의 진로교육 현황

2.1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현황

진로교육은 각자의 능력·적성·흥미·가치관·성격적 특성 등에 관한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직업 세계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선택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인생활동의 한 방향으로서의 직업을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을 매치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4].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자신이 설정한 진로 목표에 접근해가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므로 진로교육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기 훨씬 전인 청소년기 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원섭[5]은 지식전달 중심의 교실 진로교육이 아닌 다양한 삶의 공간과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청소년기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진로교육과정의 핵심적 시기이기는 하지만, 성인기 진로교육의 중요성도 증대된 만큼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불안정하고 비정형화된 진로경로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6]. 단순한 직업선택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진로교육을 벗어나 생애에 걸친 개인의 역량 강화능력 배양을 촉진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여러 사회구성주체가 상호 작용하면서 연계·협력하는 진로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진로교육법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 그리고 학생 발달단계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 진로 담당교사 및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학교 진로교육 활동(심리검사, 상담, 진로수업 등), 진로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진로체험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의 진로 체험처 제공 의무화, 무료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학생의 진

로체험 또한 수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 차원의 전문가 진로교육을 ‘교육기부’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혁신적인 시도이다.

2.2 진로교육 현황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진로교육현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5년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7]. 2015년 제정한 진로교육법의 탄생 배경일 수도 있지만, 전국의 중·고교 74.3%가 직업 체험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육방식(중복선택가능)은 직업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 활용교육(88%)이었으며, 직업인 초청 특강(61.1%), 직업현장 견학(49.5%), 프로그램 참가(39.2%), 진로 및 직업박람회 참석(3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7].

직업체험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가장 호응이 높은 것은 직업현장에서의 체험이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등 실제적으로 참여형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 가능한 시설·기관 부족, 참여 기업체 다양성 부족,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을 장애요인으로 제시한 점을 보더라도[6] 국내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니즈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2년에 발표한 학교 진로교육 지표조사 연구[8]에서는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로상담실 설치나 커리어넷 활용과 같은 물적 시설이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활용 정도는 대도시나 농어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진학상담 교사라는 전문인력 배정에서는 대도시가 92.8%, 중소도시가 90.1%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어촌 학교는 81.2%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과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보[2]도 농어촌 지역학교의 진로교육 관련 문제점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배치를 지적한 바 있는데, 학생 수 100명 이상의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

하는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였고, 이는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의 저하로도 이어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로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통한 진로교육이다[6]. 교육부에서도 2010년 이후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을 부각시키기 위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밖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학교-지역사회 연계인프라는 구축할 수 있겠지만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험현장학습의 준비와 진행은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간, 시간, 재능기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 참여사업도 일종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사업이라 할 수 있다[1]. 지역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고는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만한 인력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또 하나의 보완책으로 시니어 참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직업현장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을 활용한 상담과 교육은 다소 시류에 뒤처지기도 하며, 40년 이상 차이 나는 시니어들이 최소 10년 후의 미래와 직업세계에 대해 십대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것 자체도 어색할 수 있다. 눈높이에 맞는 교육보다는 일방적인 강연에 그칠 우려도 크다.

2.3 진로교육에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과 앞으로의 인생목표와 직업 선택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9]. 미국에서 실시한 2011년의 연구[10]에서도 전문적인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대학과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학습 및 준비과정을 이해시키고 실제 학교생활에 적용하도록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교사의 교육적 배경과 전문성은 학생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진로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개의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이들이 접하게 될 취업기회나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진하며, 현재 본인들의 능력과 지식, 학업수준 등이 자신들이 생각하

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고민도 이런 문제를 어떤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정체성이나 자존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에 있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고민은 직업 자체를 찾는 것보다는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안정적 직장을 가질 수 있느냐에 있다[11,12,13,14].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역량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터넷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은 진로교육 및 상담에 특화된 사이트에 상당히 의존하지만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나 역량 및 적성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없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Q&A나 일방적인 정보제공은 그 효과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로교육담당교사나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코칭 과정을 통해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한 의문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의 능동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학교 졸업 후의 고용가능성을 제고시켜 주게 된다[11,15]. 진로나 직업에 관한 단순한 지식 제공만으로는 복잡다단한 진로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해쳐 나가기 쉽지 않다.

3. 설문조사 및 분석

3.1 설문조사 항목 및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수준 파악을 일차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수도권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 당 50부의 설문지를 보내어 우편으로 회신을 받았다. 설문대상 학교는 농어촌의 3개 인문계 고등학교, 수도권의 1개 인문계 고등학교, 농어촌 및 수도권에 위치한 공고(특성화고) 두 개 학교로 설문 수집이 용이한 학교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총 299매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항목에는 지역, 학년, 성별, 연간 진로교육시간, 현재 받고 있는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유형(복수 답변 가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수강한 진로교육의 효과 정도,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 정도, 대도시 학

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과의 비교할 때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의도 등의 4개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들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선행연구 [12,13,14,15]를 토대로 도출된 것이다.

3.2 주요 요인의 기술통계

학생들의 연간 진로교육 수강시간은 평균 49.44시간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터넷이나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방식이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었으며, 전문가의 강연, 선생님과 상담, 현장견학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어 일대일 진로교육이나 상담보다는 비용효율적인 진로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평균값을 간략히 살펴보면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5점 척도에서 3.22를 나타내고 있어 보통을 간신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3.31로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진로교육기회의 박탈감에 대해서도 2.76의 평균값을 기록하여 다른 학우나 학교에 비해 진로교육 측면에서는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의도 항목에 대한 응답치 평균값은 3.81로서 많은 학생들이 기존과는 다른 진로교육을 받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Key Variables

construct	Mean	Standard Deviation
Total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hours completed	49.44	28.743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3.22	1.045
Anxiety from uncertain career path	3.31	1.040
Intention to take expert leading education class	3.81	.951
Sense of being deprived opportunity in taking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2.76	1.023

3.3 기초통계 특성에 따른 분산분석

학교유형과 수도권 여부 및 성별에 따른 요인 평균값

의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학교유형(인문계 = 1, 특성화계 = 2)에 따른 분석에서는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교육 수강시간에서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문계 평균이 36.53시간, 특성화계열은 74.75시간으로 인문계에 비해 특성화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진로교육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NOVA Results based on School Type (general school = 1, vocational School = 2)

construct	n	Mean	F value (p value)
Total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hours completed	1	198	36.53
	2	101	74.75
	total	299	49.44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	198	3.16
	2	101	3.35
	total	299	3.22
Anxiety from uncertain career path	1	198	3.34
	2	101	3.26
	total	299	3.31
Intention to take expert leading education class	1	198	3.82
	2	101	3.79
	total	299	3.81
Sense of being deprived opportunity in taking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	198	2.84
	2	101	2.61
	total	299	2.76

학교 위치에 따라 주요 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 수강시간, 교육효과, 전문가상담희망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OVA Results (urban school = 1, non-urban school = 2)

construct	n	Mean	F value (p value)
Total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hours completed	1	99	42.24
	2	200	53.00
	total	299	49.44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	99	2.70
	2	200	3.48
	total	299	3.22
Anxiety from uncertain career path	1	99	3.36
	2	200	3.29
	total	299	3.31
Intention to take expert leading education class	1	99	3.58
	2	200	3.93
	total	299	3.81
Sense of being deprived opportunity in taking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	99	2.74
	2	200	2.78
	total	299	2.76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교육에 대한 수강 시간은 비수도권 학생들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효과나 전문가 상담희망 항목에서도 비수도권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교육에 대한 수강시간이 길면서도 새로운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진로교육기회의 차별 등에서는 유의확률이 5%를 초과하여 지역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남 = 1, 여 = 2)에 따라 주요 요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교육효과와 진로에 대한 불안감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 측면이 높으며 진로교육에 대한 효과 인식에서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교육에 대한 수강시간, 진로교육 기회의 박탈감, 전문가 상담희망 항목에서는 유의확률이 5%를 초과하여 남녀 간에는 통계적으로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ANOVA Results based on Gender

		n	Mean	F value (p value)
Total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hours completed	1	225	50.28	.788(.376)
	2	74	46.86	
	total	299	49.44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	225	3.36	15.888(.00)
	2	74	2.81	
	total	299	3.22	
Anxiety from uncertain career path	1	225	3.17	16.796(.00)
	2	74	3.73	
	total	299	3.31	
Intention to take expert leading education class	1	225	3.80	.068(.794)
	2	74	3.84	
	total	299	3.81	
Sense of being deprived opportunity in taking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	225	2.77	.035(.852)
	2	74	2.74	
	total	299	2.76	

3.4 기존 진로교육의 효과에 대한 인과분석

본 소절에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기존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진로교육의 효과를 종속요인으로 설정하고 진로교육기회의 차별, 수도권 여부, 진로교육 수강시간, 진로에 대한 불안감, 학교특성(인문 또는 특성화)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F값이 12.35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인 R제곱값은 0.20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산팽창요인값(VIF)도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의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인문 또는 특성화), 수도권 여부, 성별, 진로교육기회의 차별 등의 4개 요인의 p값이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인 진로교육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학교유형(인문 또는 특성화)이 특성화계열일수록, 비수도권일수록, 남학생일수록, 진로교육기회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진로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진로교육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여부가 계수값 = .971(p값 = 0.00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진로교육수강시간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진로교육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핵심요인인 전문가 상담희망 정도를 종속요인으로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의 F값은 8.1(p값 = 0.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값(VIF)도 모두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계수인 R제곱값은 0.163이며,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교육효과가 계수값 = .328(p값 = 0.000)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계수값 = .101, p값 = 0.064로 약하나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기존의 진로교육과정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본 연구의 주제인 전문가 중심의 진로상담 및 교육에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MBA 동문네트워크 기반 진로교육 비즈니스모형

4.1 MBA 동문기반 진로교육 비즈니스의 배경

교육기부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이 초·중등교육활동(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활동)을 지원 또는 보완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인적 자원을 대가없이 제공하는 활동[16]으로 재능기

<Table 5> Regression Analysis(Dependent Variable :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t	p value	VIF
		B	standard error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3.035	.242	12.531	.000	
	School Type (general school = 1, vocational School = 2)	.499	.208	2.400	.017	3.254
	Location(urban school = 1, non-urban school = 2)	.971	.143	6.770	.000	1.531
	Gender(boy = 1, girl = 2)	-.324	.159	-2.033	.043	1.589
	Total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hours completed	-.005	.003	-1.744	.082	2.539
	Anxiety from uncertain career path	.015	.058	.251	.802	1.219
	Sense of being deprived opportunity in taking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123	.058	-2.130	.034	1.167

<Table 6> Regression Analysis
(Dependent Variable : Intention to enroll in expert-leading education class)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		t	p value	VIF
		B	standard error			
Independent Variable	constant	2.086	.280	7.437	.000	
	School Type (general school = 1, vocational School = 2)	.154	.196	.785	.433	3.318
	Location(urban school = 1, non-urban school = 2)	.174	.144	1.206	.229	1.772
	Gender(boy = 1, girl = 2)	.224	.150	1.494	.136	1.612
	Total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hours completed	-.002	.003	-.840	.402	2.566
	Anxiety from uncertain career path	.101	.054	1.862	.064	1.219
	Sense of being deprived opportunity in taking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083	.054	1.539	.125	1.185
	Effect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class	.328	.055	6.005	.000	1.254

부, 나눔과 같이 학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유형적·무형적 자원의 활용을 강조한다.

학교내외에서의 진로·체험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진로탐색 및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형태의 교육기부는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통해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소개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일반적 직업에 종사하지만 다양한 기부자들을 모아 강연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교육기부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수치화할 수 없는 정도로 그 필요성이 매우 높다. 특히나 이론과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지식과 재능을 나누고 기부하는 행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도 학교 수업을 변화시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수업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식 및 재능의 나눔과 공유를 통한

기부가 더욱 중시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진로 교육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5점 척도에서 3.22를 나타내고 있어 보통을 간신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공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은 3.31로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진로교육기회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2.76을 기록하여 다른 학우나 학교에 비해 진로교육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상담을 희망한다는 응답치의 평균값이 3.81로서 많은 학생들이 기존과는 다른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진로교육을 받고 싶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학생들의 니즈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소재 종합대학교의 직장인 대상 MBA 재학생 및 동문을 활용한 교육기부 비즈니스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모형이란 조직이 고객을 위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여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로서 기술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의 두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17]. MBA 재학생 및 동문회에는 IT, 금융,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경영,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이들의 역량을 조직화하여 교육기부할 수 있는 여건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2 진로교육 비즈니스의 운영방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MBA 프로그램은 학위과정 이기는 하지만 선·후배와의 관계, 각종 동호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이중 교육기부의 목적으로 모인 소모임은 소외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촌의 다양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진로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MBA 동문회내의 교육기부 소모임은 현업의 경력 10년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농어촌 고등학생들에게 지역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도 한다.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의 요청이 오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인 MBA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팀을 이루어 교육기부 형식으로 일정 시간의 강연과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각 참여자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하고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 등도 함께 제시한다. 현업의 어려움이나 보람된 경험 등도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코칭 역할도 하여 학교현장이나 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현업전문가 중심의 진로교육과 상담은 일종의 간접적인 체험 중심 진로교육이기는 하나 본인들이 선택할 전공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의 긍정적 몰입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취업시장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동시장에서 활용할 수 지식과 기술, 능력의 유형과 수준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MBA 학생회 및 동문회내의 교육기부 가용인력을 추정해보면, 연간 입학생이 150명 정도이므로 재학생 300여명, 5년 이내의 졸업생 650명 정도만을 인력풀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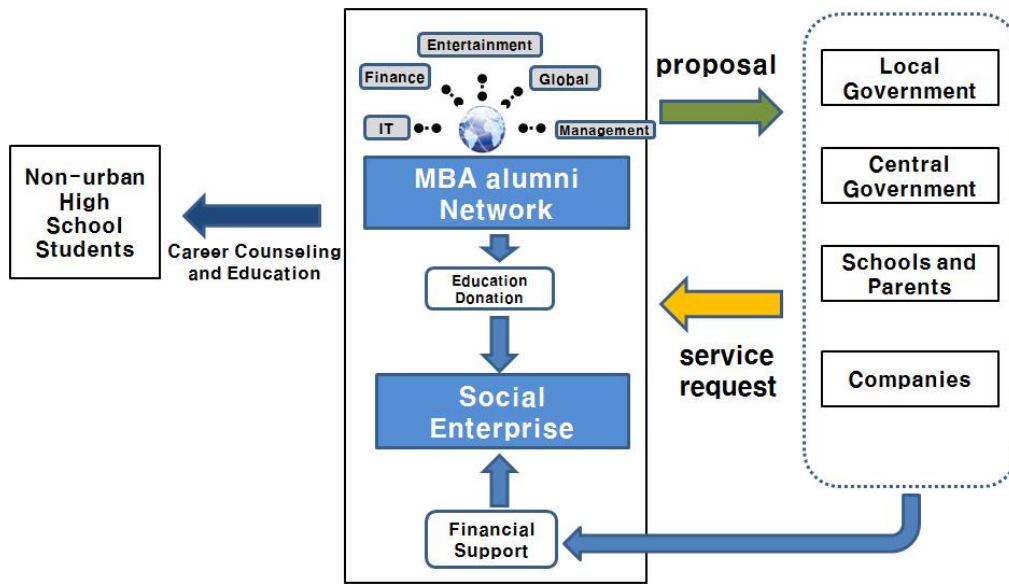
하고 이중 10% 정도 교육기부에 동참한다면 연평균 95명 정도의 현업전문가가 본 연구에서 추진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긴밀한 교류관계에 있는 여러 타 대학 MBA 학생회나 동문회와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교육기부인력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러 대학의 MBA 학생회나 동문회가 연합하는 경우 진로교육차원에서의 교육기부 폭과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4.3 사회적 기업 창업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교육기부가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비춰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 해결대안을 찾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특한 개념의 기업이다[18]. 자체적인 수익 위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면서 공적 사명 의식을 발휘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기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어촌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초기에는 MBA 동문회 부설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는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정부의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비즈니스모형 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즈니스 모형은 [Fig. 1]에 도시되어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자 소속의 대학의 MBA중심뿐만 아니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타 대학의 MBA 학생회 및 동문회와도 연합하여 IT, 금융,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경영, 서비스, 제조,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잠재적 교육기부자 풀을 구축한다.

MBA 동문회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운영진을 중심으로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브로슈어 등을 개발하여 커리어넷, 직능원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털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한



[Fig. 1] Business Structure and Flow of MBA-Network based Program

다. 학생들에게 제공될 콘텐츠는 직업인의 역할과 소감,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 해당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직업인으로서의 마음가짐, 기업 문화 등을 포함한다.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업운영에 매진할 수는 없으므로 MBA 동문회의 상주직원과 국가의 시니어 재취업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운영인력을 확보한다. 또한 각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진로교육 및 상담 수요에 대한 니즈도 평가하게 된다.

개인의 교육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교육 및 상담 서비스 조직이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는데 라준영[18]의 제안모형을 참고하여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모형에의 적합성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업의 목표고객은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며,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제공되는 가치에 공감하지만 직접적 동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요청을 통해 교육이 제공된다.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둘째, 본 사업의 가치 제공물은 장소의 가치, 형태의 가치, 거래횟수 감소의 가치 등이다. 장소의 가치는 대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경험, 노하우, 지식 등의 가치를 농어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형태의 가치는 진로 교육 니즈에 따라 모

듈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있다. 거래횟수 감소의 가치는 교사들이 직접 정보 제공자, 경험자, 실제 업무 유지하고 있는 자 등을 섭외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행을 반복하는데 투입되는 노력을 줄여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셋째, 본 사업의 자원 및 핵심역량은 교육기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융합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집합이라는 인력 풀이며, 핵심역량은 일반적인 경영관련 지식 뿐 아니라 해당 직종의 전문 지식 및 업무경험 등도 포함된다. 또한 30대에서 50대까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산업군의 전문가들을 섭외할 수 있다는 역량도 무형적 핵심자원에 포함된다.

넷째, 본 사업의 내부가치사슬은 IT, 금융,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경영, 서비스, 제조, 공공기관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로 뭉친 MBA 재학생과 동문 네트워크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조화된다. 각 지역의 동문들을 지역전문가, 각 산업의 현업종사자들을 현업전문가로 그 역할을 의뢰하고 통합적인 진로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

다섯째, 외부가치 네트워크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참여자로 하며 지역별 진로교육의 니즈, 내용, 방법론 등을 논의하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등이 지원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정책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학교의 재

정적 부담을 줄여주며,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한다.

여섯째, 본 사업의 목표고객은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고등학교 재학생들이지만,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시의적절한 교육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교육이 제공된다. 강연이나 상담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방식 외에도 진로 체험 캠프 등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교육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교육이 사회적 기업형태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를 수행하는 동문봉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과 사회적 기업 자체의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가 연간 예산의 형태로 확보되어야 한다. MBA동문사무국의 협조를 통해 사무실 공간의 일부지원과 진로교육을 받는 비수도권학교에 대한 소액 기부를 통해 예산 일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은 진로체험 캠프 및 교사 대상의 진로교육관련 재교육 과정 운영과정으로부터의 수익을 기반으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동문의 교육기부를 통해 다양한 외국대학 수학의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내의 운영위원회 및 상주 직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의 내용과 방법 및 계획 등에 관한 전략 수립, 각 지역별 교육 필요사항의 조사, MBA 동문 사무국의 협조 하에 교육기부가능성이 높은 동문들의 관리, 지역별 잠재고객(지방자치단체, 학교, 지원 동참기업 등)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MBA 동문사무국의 홈페이지와 연계된 독립 웹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5. 결론

청소년기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 및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받아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진로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1차적인 정보원은 진로담당교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상호관계가 제한적인 고등학생의 경우 신뢰성 있는 정보의 공급원은 교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농어촌지역학교의 경우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배치율이 대도시 학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에서 체험위주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지역사회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직업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을 통한 간접경험 제공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환경적 제약 속성을 가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수준과 다양한 직업인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를 검토해 보았다. 조사결과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5점 척도에서 3.22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적 수월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진로교육기회의 박탈감에 대해서는 2.76의 평균값을 기록하여 도시지역의 학교에 비해 진로교육 측면에서는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곧 도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이나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참여의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3.81의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기존과는 다른 진로교육을 받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이런 과정을 통해 예비직장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학업 동기 및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19,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A 동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기부를 사회적 기업 형태의 지속가능경영 조직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논의해 보았다. 사업초기에는 MBA 동문회의 지원을 전제로 비정규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지속가능한 교육과정 제공

이 가능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연구자 소속 대학의 MBA중심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타 대학의 MBA 학생회 및 동문회와의 조인트 프로그램 개설도 가능해 질 것이다.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에서 성공여부를 단언하기 힘들지만,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수요를 감안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충분한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The Second Five-Year Master Plan for Career and Academic Education, 2016.
- [2] Kim, Soong Bo., "Career and Academic Education for ALL : Issue in Non-Urban Rural Areas Schools", The HRD Review, Vol. 72, No. 9, pp. 84-100, 2014.
- [3] Creed, Peter, Wendy Patton, and Lee-Ann Prideaux.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A Longitudinal Cross-lagged Analysi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33, No. 1 pp. 47-65, 2006.
- [4] Jin, MiSuk. "Activating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and Educatio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he HRD Review Vol. 16, No.1, 2013.
- [5] Jang, WonSup. "Social Change and the Direction of Career and Academic Education", Proposal for Operating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and Education based on School Curriculum, pp. 123-146, 2008.
- [6] Kim, W., J. Lim, B. Lim. Activating Career Educ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y,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2015.
- [7]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15 Survey on Career and Academic Counseling and Educat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5.
- [8]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12 Survey on Career Education Index, 2012.
- [9] Alger, A.L. and M. Luke. "The School Counselor Perspective: Preparing Students to be College and Career Ready within a Comprehensive School Counseling Program, The Practitioner Scholar", Journal of Counseling and Professional Psychology, Vol. 4, 2015
- [10] Hart Research Associates. One year out: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among members of the high school graduating class of 2010. The College Board, 2011.
- [11] Crişana, C., A. Paveleab, O. Ghimbulu etc. "A Need Assessment on Students' Career Guidance",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180, pp. 1022 - 1029, 2015.
- [12] Jung, In-Ho,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13] Yu, EY & YJ Y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2, pp. 557-568, 2013.
- [14] Park, Sung-Hee & Jae-Hee Ahn.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Competencies based on Gender, Grade, and Fields of Major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4, No. 8, pp. 69-80,
- [15] Kim, YJ., YY Kim, SM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9, pp. 39-47, 2015.
- [16] Ju, ChangBum, SeungBin Im, JiWon Han, Policy for Activating Personal Donation for Education and Expanding Public Educational Resourc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2015.

- [17] Kyoo-Sung Noh, Joo-Yeoun Lee, Seong Taek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Multicultural Family Business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4, No. 3, pp. 199-207, 2016.
- [18] Rha, June-Young, "Business Models for Social Enterprises", The Korean Venture Management Review, Vol. 13, No.4, pp. 129-161, 2010.
- [19] Lee, Yang-Gu. "Career Preparing Behaviors and Exploration of Measures for Convergence Talent Education in College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and Related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4, No. 8, pp. 487-496., 2016.
- [20] Kim, Hun-Hee & Yun-Hee Choi, "Effects of Creativity Instruction Activities on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 Based on NFTM-TRIZ Creativity Educ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3, No. 9, pp. 277-286, 2015.

김 태 응(Kim, Tae Ung)



- 1978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문학사)
- 1982년 5월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1986년 8월 : 미국 퍼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공급망관리
- E-Mail : tukim@skk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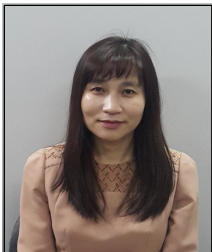
박 성 택(Park, Seong Taek)



- 2003년 8월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경영학박사)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14년 6월 ~ 현재 : KASOM 빅데이터 전임교수

- 관심분야 :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마이닝, 특허가치평가, 특허경영, 공급망관리 등
- E-Mail : solpherd@cbnu.ac.kr

조 민 우(Cho, Min Woo)



- 201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석사)
- 2001년 10월 ~ 현재 : ㈜에이씨엔티 시스템 부장
- 관심분야 : 공급망관리, 경영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설계
- E-Mail : min@acnt.co.kr